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153~181

스페인어 주어의 통사적 위치 및 비해석성 자질의 일치 점검 연구*

양 승 관**
(Yang, Seung-Kwan)

〈Abstract〉

Estudio de la Posición Sintáctica del Sujeto en Español y el Cotejo Mediante Acuerdo de los Rasgos no Interpretables

El presente trabajo tiene por objeto examinar la posición sintáctica del sujeto en español. En concreto, investigaremos dos cuestiones relevantes: en primer lugar, ¿dónde está la posición sintáctica del sujeto preverbal en español?; en segundo lugar, ¿cómo se cotejan los rasgos no interpretables, es decir, el rasgo PPE(*Principio de Proyección Extendido*) y el Caso del núcleo funcional de Tiempo y el Caso nominativo del sujeto? Con el fin de resolver estos problemas adoptaremos, básicamente, las hipótesis minimalistas expuestas en Chomsky(1998; 1999; 2001) como método de investigación. Con respecto a la posición posible para el aterrizaje del sujeto preverbal, aceptaremos la idea de Ordóñez y Treviño(1995; 1999), según la cual existe una posición exterior a la oración: [Espec, STóp]. Proponemos que el sujeto debe desplazarse directamente a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skygap@hanmail.net

[Espec, STóp] en la sintaxis explícita. También asumimos que el núcleo funcional Tóp lleva un rasgo [-tóp] no interpretable. Este rasgo entra en una relación de cotejo con el rasgo [-tóp] del sujeto mediante “acuerdo”. Supondremos que el núcleo Tóp también lleva el rasgo seleccional PPE no interpretable, que se satisface mediante “llenado” de su Espec de STóp por el sujeto. Entonces, ¿cómo pueden realizarse el cotejo del rasgo PPE y el Caso de T, así como del Caso nominativo del sujeto? Siguiendo las hipótesis de Chomsky(1998; 1999; 2001), proponemos que el rasgo-ϕ de T entra en una relación de cotejo con el rasgo-ϕ del sujeto mediante “acuerdo”. Por lo tanto, en español el cotejo del rasgo-PPE de T no se necesita satisfacer mediante “llenado” de su Espec de ST por el sujeto.

[Key Words: La Posición Sintáctica del Sujeto/ Los Rasgos no Interpretables/ El Cotejo Mediante *Acuerdo*/ Las Hipótesis Minimalistas]

[주제어: 주어의 통사적 위치/ 비해석성 자질/ 일치에 의거한 점검/ 최소주의 가설]

Ⅰ. 서론

스페인어와 같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문장 요소들의 분포 또는 어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의 전통 문법학자들이 어순 문제를 정해진 통사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닌 시대와 스타일에 따른 경향성 또는 선호도 문제 정도로 연구해 왔다는 것

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에서의 통사 이론적 발전이 문장 요소들의 어순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사 이론 내에서 스페인어 주어의 통사적 위치 및 도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2 가지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첫째, 전치 주어의 통사적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둘째, 기능핵 T(iempo)의 PPE 자질과 격자질, 그리고 어휘 주어의 격자질은 어떻게 점검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주의(Chomsky 1998; 1999; 2001)내에서 해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해 보겠다. 제3장에서는 Ordóñez y Treviño (1995; 1999)가 스페인어 주어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화제구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 4장에서는 최소주의 통사적 가설 내에서 주어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해석성 자질들의 일치 점검 과정에 대해 보기로 하겠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간략한 결론을 제시하겠다.

Ⅱ. 주어의 통사적 위치에 관한 선행 연구

1. Chomsky(1992)의 표준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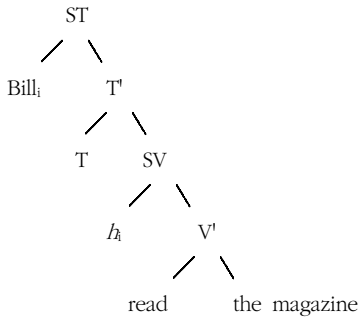
주어의 위치와 관련하여, Chomsky(1992)의 표준 가설은 그 위치가 주격(Caso nominativo)과 일치(Concordancia)가 실현되는 곳으로 보고 있다.[1] 그에 따르면, 격자질은 지정어-핵(Espec-Núcleo) 일치 관계 하에 점

1) 로망스 계통의 언어를 위해 Rizzi(1990), Belletti(1990), Cardinaletti(1996) 등을 참조

검된다고 가정한다. 영어에서는 T의 명사적 자질(rasgo-SN)이 강하고 동사적 자질(rasgo-SV)은 약하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어휘 주어의 외현적 이동을 통하여 강한 비해석성 자질이 음성형태 부문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되고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자질은 음성형태 부문에서 보이면 비합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자화 이후 계속 남아 있으면, 그 도출은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 예문 (1)은 (2)와 같은 통사적 과정을 거쳐 도출되어진다.

(1) Bill read the magazine.

(2)



이러한 표준 가설이 스페인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자. 즉, 영어 예문 (1)에 상응하는 스페인어 예문 (3)의 도출 과정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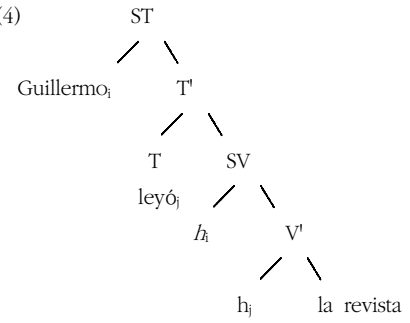
(3) Guillermo leyó la revista.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에서 기능핵 T의 동사 자질은 강하다고 가정하고 있다.[2] 따라서 동사는 외현적 통사부(sintaxis explícita)에서 T까지 이동하

하시오.

게 된다. 그리고 표준 가설을 따라서 주어도 외현적으로 [Espec, ST] (Especificador del Sintagma de Tiempo)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다음의 문자화 직전 구조가 만들어지며, 결국 "주어+동사+목적어" 어순이 도출된다:

(4)



(2)와 (4)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두 언어 사이에 동사의 외현적 이동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똑같이 "주어+동사+목적어"라는 표층적인 어순이 도출되게 된다. 그렇다면 영어와 스페인어의 주어는 통사적으로 같은 위치인가?

주어의 외현적 이동은 T의 명사적 자질이 강하다는 가정에 의존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스페인어에서 영어와는 달리 유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VSO와 VOS 어순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3] 즉, T의 명사적 자질이 강하다고 하면 주어는 항상 문자화 이전에 [Espec, ST]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후

2) Pollock(1989)과 Belletti(1990)를 참조하시오.

3) 영주어 언어들은 전통적으로 영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언어들과 매개변인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한 특성들 중 하나가 영주어 언어에서는 주어의 자유로운 도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술어의 전·후에 나타날 수 있다.

치 주어 예문들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Koopman y Sportiche(1991)는 전치 주어의 경우 [Espec, ST]에서 Espec-Núcleo 관계로 점검되며, 후치 주어는 지배(rección)하에 주격 자질이 점검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두 가지 상이한 점검 유형을 가정해야하며, 또한 지배 개념이 최소주의 가설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계속해서,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가 [Espec, ST]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논증을 보자. 경험적 논증은 문장 부사의 위치 분석과 기능 범주의 상대적 위치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4] 먼저, 문장 부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들은 스페인어에서 문장 부사가 주어와 시제 동사 사이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a. Manolo probablemente leyó la novela.
b. Manolo apenas/ya/casi ha leído la novela.

probablemente, apenas, ya, casi 등과 같은 문장 부사들은 일반적으로 ST 투사에 부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T로 외현적 이동한 동사보다 문장 부사들이 선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ST에 부가되는 위치여야 한다. 따라서 (5)에서 주어들이 ST에 부가된 부사들보다 앞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주어들은 ST 위치보다 더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

4) 이러한 분석들은 다음의 기본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다: 첫째, SV 내부 주어는 보편적으로 동사 투사의 Espec 위치에서 기저 생성된다. 따라서 기본 어순이 SVO가 된다(cf. Kayne 1994; Chomsky 1995); 둘째, 스페인어에서 동사는 T까지 외현적 이동을 한다; 셋째, T에서 C로의 외현적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cf. Goodall 1991; Arnaiz 1992; Bok-Bennema 1992; Suñer y Lizardi 1992; Toribio 1993; Suñer 1994; Ordóñez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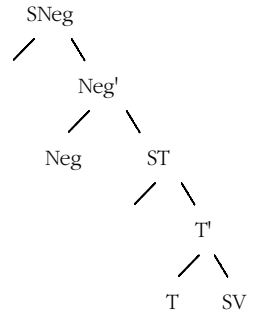
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기능 범주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경험적 증거들을 보자:

(6) a. Pienso que Carmen no ha estudiado hoy.
b. *Pienso que no Carmen ha estudiado hoy.

위 예문들은 전치 주어의 격이 [Espec, ST]에서 점검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5] (6a)의 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치 주어가 부정어 'no' 보다 선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어에 관한 Laka(1990), Ouhalla(1990), Espinal(1991), Longobardi(1991), Bosque(1992), Zanuttini(1990) 등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어가 자기의 고유한 통사적 투사 SNeg (Sintagma de Negación)를 이끄는 핵이며, 스페인어에서 SNeg는 ST를 관할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7)



(6a)와 같은 정문이 보여 주듯이 스페인어 부정문에서는 주어가 기능핵 Neg에 나타나게 될 *no*보다 선행하는 위치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주어는 [Espec, ST] 위치에 있을 수 없고, SNeg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5) Bosque(1992)와 Contreras(1996)를 참조하시오.

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다음의 의문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8) a. ¿Qué vendió José?
b. *¿Qué José vendió?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Hipótesis del Sujeto Interno al SV)의 수용 이전에는 SVO 어순의 언어에 있어서 주어가 [SN, O] (최근의 용어로는 [Espec, ST]) 위치를 차지했었다. 따라서 VSO 어순은 *동사 전치(anteposición de V) 규칙*을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졌었다. 예를 들어, Torrego (1984)의 분석에서 논항 의문사구가 (8)의 의문문에서와 같이 기능핵 C로 이동하는 경우에 동사는 O에 필수적으로 부가되어져야 한다. 동사의 이동으로 스페인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필수적인 도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는 (8b)의 비문법성이 동사가 C로 이동하지 않았음에 기인되고, 반면 (8a)는 동사가 C로 이동하여 정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분석에서는 주어가 [Espec, ST]에 위치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험적 증거들은 스페인어에서 동사가 C까지 이동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6]

(9) a. ¿A quién jamás ofenderías tú con tus acciones?
b. ¿Qué libro apenas/ya ha leído Juan?

위의 예문들로부터 볼 수 있듯이, jamás, apenas, ya 부사들이 [Espec, SC] (Especificador del Sintagma Complementante)와 동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동사들이 C까지 이동했다면, 이 부사들은 동사보다 뒤에 위

6) Suñer(1994)와 Olarrea(1996)를 참조하시오.

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9)에서와 같이 부사들이 동사보다 선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논증을 보자:

(10) a. ¿Qué revistas no lee Isabel?
b. [$_{SC}$ Qué revista$_j$ C [$_{SNeg}$ no [$_{ST}$ lee$_i$ [$_{SV}$ Isabel h_i h_j]]]]
c. *¿Qué revistas lee no Isabel?

(10a)의 정문에서 부정어 'no'가 동사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은 스페인어에서 동사의 이동이 C까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cf. (10b)). 실제로 그런 이동은 (10c)의 비문이 보여주듯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Suñer(1994, 349)가 관찰하고 있는 *ST 생략*(*Truncamiento*)현상도 동사가 T까지는 이동하지만 C까지는 이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1) a. Este verano leí varias novelas, pero no recuerdo cuántas.
b. Se fue de vacaciones, pero no dijo adónde.

동사가 T에 머물러 있으면, [Espec, SC]에 의문 구성소만을 남겨 놓은 채 하나의 구성소로서 ST 생략이 가능하다. 반면, 동사가 C까지 이동되었다면 ST 생략 후에 동사가 남게 되므로 (11) 같은 정문이 도출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위 예문들에서 C'가 생략된다면 (11)의 예문들이 도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 생략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C'는 하나의 구성소가 아니기 때문이다.[7)]

위에서 살펴본 논증들을 통해 스페인어에서 동사는 C까지 이동하지 않으며, 또한 (8), (9), (10)의 예문에서 주어가 [Espec, ST]에 위치하지 못

7) 구성소 생략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증에 대해서는 Yang(2000, Cap. III)을 참조하시오.

한다.[8] 이러한 논증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스페인어에서 전치 주어와 관련하여 [Espec, ST]가 투사될 필요가 없으며 외현적 통사부에서 주어가 [Espec, ST]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2. 허사 pro 가정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Chomsky(1992)의 제안과는 다르게, Chomsky(1995)에서는 T의 범주 자질 [D]의 점검을 주격 자질 점검과 분리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영어에서 주어의 외현적 이동은 T의 격자질 때문이 아니고 T의 강한 D-자질, 즉 PPE 자질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한 Chomsky는 모든 언어에서 PPE 자질은 보편적이라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T의 D-자질은 강하고 비해석성이어서 ST 투사는 자기의 Espec 위치에 어떤 논항 요소나 허사 요소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스페인어의 논항 주어가 [Espec, ST]에 있지 않은 여러 논증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D-자질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강할 것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스페인어에서 T의 D-자질이 강하다고 해보자. 그리고 T의 Espec에 음운적으로 영인 허사 pro (pro expletivo: proexp) 요소가 병합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강한 T의 D-자질은 proexp의 병합에 의해 외현적 통사부에서 점검될 것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스페인어에서 T의 D-자질을 점검할 proexp를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첫째,

8) 보다 많은 이론적, 경험적 논증에 대해서는 Contreras(1991; 1996), Bok- Bennema (1992), Ordóñez y Treviño(1995; 1999), Olarrea(1996), Ordóñez(1997) 등을 참조하시오.

9) 강한 PPE 자질의 점검과 관련하여, Alexiadou y Anagnostopoulou(1998)와 Nash y Rouveret(1997)는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동사의 일치 형태소가 명사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로의 외현적 동사 이동을 통해 강한 PPE 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어 같은 영주어 언어들은 영어에서 볼 수 있는 허사 'there'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proexp의 가정은 이론 내적인 이유로만 정당화될 뿐이다. 즉, proexp는 비해석성 범주 자질 [D]로만 구성된 요소이고, 단지 연산적 필요성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proexp 요소가 배번 집합에서 도출 과정에 들어온다는 그 어떤 경험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다.

둘째, 스페인어에 pro_{exp}가 있다면, 그 요소는 영어의 허사 'there'와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준다:

(12) a. There arrived a woman.
b. *There arrived the woman.

(13) a. Ha llegado el tren.
b. Han llegado mujeres.
c. Han pasado los peregrinos.
d. Ha comprado María dos billetes de avión.

영어의 허사 'there'를 가진 예문들과는 다르게, 스페인어에서 후치 주어를 가진 예문들에서는 *한정성 효과* (efecto de definitud)를 관찰할 수가 없다. 또한 (12)의 예문들은 후치 주어가 비대격 동사(verbo inacusativo) 'arrive'의 내부 논항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 후치 주어들은 이러한 제약을 따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13)의 스페인어 예문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후치 주어가 한정성 효과를 따르지 않으며, 반드시 비대격 동사의 내부 논항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허사 pro_{exp}는 영어의 허사 'there'와 다른 통사적 특징을 보여주며, 그러한 pro_{exp}의 설정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14) 유형의 구문에서 pro_{exp}의 설정은 Chomsky(1995, 294)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제 원리 (15)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14) Llegó ella.

(15) α는 출력에 효과가 있을 때에만 배번 집합에 들어간다.

(15)에 따르면, 어떤 항이나 자질은 음운 부문과 해석 부문에 어떤 효과가 없으면 배번 집합에 선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pro_{exp}는 음운적으로 영이고 그 어떤 외현적 이동 연산으로 동기화 되지 않는다. 또한, 논리형태 부문의 합법적인 요소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pro_{exp}는 논항이 아니고 그 형식 자질은 문장 해석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원리 (15)는 pro_{exp}같은 허사 요소가 배번 집합에 선택되어지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계속해서, PPE 자질이 강하다는 가정 하에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10]:

(16) Cantan.

여기서 논항 pro는 행위자 의미역을 만족한다. (16)에서 강한 PPE 자질을 점검할 두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한 가능성은 논항 pro와 허사 pro_{exp}가 함께 배번 집합에 선택되어진 경우로, (17a)에서 볼 수 있듯이 pro_{exp}는 PPE 자질을 만족시키고 논항 pro의 형식 자질이 유인되어 T의 격과 일치 자질을 만족시킨다:

(17) a. $[_{ST}\ Pro_{exp}\ [_{Tmax}\ RF_{pro}\ cantan_{v}]\ [_{S_V}\ pro\ h_{v}]]$

10) cf. Picallo(1998).

b. [$_{ST}$ Pro$_i$ [$_{Tmax}$ cantan$_v$] [$_{Sv}$ h_i h_v]]

또 다른 가능성은 논항 pro만이 배번 집합에 선택되어지는 경우로 (17b)에서 보듯이 [Espec, ST] 위치로 외현적으로 이동하여 PPE 자질을 만족시키는 경우이다. 두 도출 표상은 PPE 자질이 강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최소주의 가설 내에서는 같은 문장을 위해 상이한 두 개의 표상이 생기는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pro$_{exp}$의 존재를 배제시키면 이러한 모호성 문제는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볼 때 스페인어에서 외현적 통사부에서 pro$_{exp}$의 설정과 병합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11] 또한 스페인어의 주어와 관련하여 [Espec, ST]가 투사될 필요도 없게 된다.

Ⅲ. Ordóñez y Treviño(1995; 1999)의 화제구 가정

앞 장에서 스페인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T의 D-자질이 약하며, 따라서 스페인어의 주어가 외현적으로 [Espec, ST] 위치로 이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는 [Espec, ST]가 아닌 더 상위의 위치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스페인어에서 주어가 동사 앞

11) Chomsky(1998; 1999; 2001)의 새로운 가설 하에서도 T의 범주 선택자질 PPE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이라고 가정하므로 PPE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가 반드시 [Espec, ST]를 채워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정을 따르면, 스페인어의 후치 주어를 위해 영어의 허사 'there' 구문과 마찬가지로 proexp의 순수 병합으로 T의 PPE 선택자질을 점검할 것이다. 그러나 Lee(2000)에서 제안하듯이, T의 PPE 선택자질이 모든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 자질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에 proexp를 [Espec, ST] 위치에 병합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주어 언어의 경우 허사 pro가 불필요한 문법 수단이며 PPE가 보편적 자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본 논문의 제안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의 어떤 통사적 위치에 나타나게 되고 표층 어순 SVO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본 장에서 우리는 스페인어 전치 주어는 ST보다 상위에 있는 화제구 [Espec, STóp](Especificador del Sintagma de Tópico) 위치로 직접 외현적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최소주의 가설 내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는 자연 언어에 나타나는 상이한 이동의 동기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 하에 우리는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가 외현적 이동을 하는 이유를 기능핵 Tóp의 [tópico]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제안한다. 즉, 이러한 이동이 T의 PPE 자질이나 격자질 때문이 아닌, Tóp의 [tópico]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스페인어 전치 주어가 주제화된 요소들의 정보 구조와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어순이 정보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Contreras(1976; 1978)와 Suñer(1982)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신-구 정보, 주제화-초점 (tópico- foco) 등의 이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정보 구조는 스페인어의 어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전망 하에 주제화된 요소는 문장의 서두에, 그리고 초점 요소는 문장의 말미에 오는 경향이 스페인어에 나타나고 있다(cf. Zubizarreta 1994; 1998):

(18) a. A: ¿Qué prepara María?
B: María prepara la cena.
b. A: ¿Quién comió la torta?
B: Comió la torta Juan.

서술문의 전치 요소는 선행 문장에서 이미 제공된 알려진 정보를 나타내며, 후치 요소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Zubizarreta(1994; 1998)는 주제화-초점 요소(tópico-foco)가 문법적 상관 관

계를 가질 수 있고, 문법적으로 부호화 되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12]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 전치 주어의 이동은 담화적 요인 때문이 아닌 [tópico] 같은 통사적 형식 자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STóp의 가능한 위치와 관련하여, 우리는 Ordóñez y Treviño(1995; 1999)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저자들은 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가진 구문들이, 콤마로 탈구된 전치 요소들을 가진 문장과 비교하여, 유사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19) a. Toda la gente pide al gobierno el reconocimiento del EZLN.
b. El reconocimiento del EZLN se lo pide toda la gente al gobierno.
c. Al gobierno le pide toda la gente el reconocimiento del EZLN.

(20) Las pruebas, los líderes las proporcionaron a la prensa.

전치 목적어들이 전치 주어와 유사하게 행동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스페인어의 동사구 생략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a. Juan le dio un libro a María y (me han dicho que) Tomás también.
b. El libro se lo dio Juan a María y (me han dicho que)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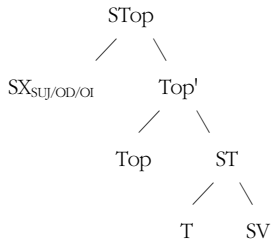
12) 그러나 Rivero(clase, 1996-1997)와 Picallo(1998) 등은 [tópico] 자질이 연산 체계에서 점검될 수 있는 통사적 형식 자질로 고려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녀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어순이 실제로 정보적 구조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신-구 정보 같은 개념은 통사적 형식 자질을 통해 연산 체계에 정보화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들은 화자간에 공유하는 배경 지식과 관련된 어떤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Zubizarreta(1994; 1998)의 견해를 수용하여 기능 범주 Tóp에 [tópico]라는 통사적 형식자질을 가정하고 있다.

maleta también.
c. A María le dio Juan un libro y (me han dicho que) a Sara también.
d. *A María, los niños le dieron un libro y a Pía, Pedro también.

스페인어에서는 sí, no, también, tampoco 같은 극성 표시 부사를 남기는 생략이 존재한다. 전치에 오는 주어와 목적어는, (21a, b, c)가 보여주듯이, 생략의 남는 요소일 수 있다. 반면, 그러한 생략이 (20)과 같은 문맥에서는 불가능하다(cf. (21d)).

이러한 논증들을 근거로 하여, Ordóñez y Treviño(1995; 1999)는 주제화 요소들이 나타나는 위치를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동사와 인접한 전치 주어 위치,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콤마로 탈구된 위치.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와 전치 목적어는 콤마로 탈구되지 않은 위치로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13]:

(22)



다시 말하면, 전치 주어와 전치 목적어는 기저 위치로부터 ST보다 상위의 기능핵 Tóp의 Espec 위치로 이동해 있는 것이다.

13) Ordóñez(1997; 1998)에서도 유사한 논증들을 찾아볼 수 있다.

Ⅳ. 비해석성 자질의 일치 점검

비해석성 자질의 일치 점검을 논하기에 앞서, 최소주의 가설이 어떻게 새롭게 개정되고 발전되었는지 보고, 그러한 가설 하에 스페인어의 주어의 이동 및 자질 점검이 어떻게 분석되어질 수 있는지 보겠다.

1. Chomsky(1998; 1999; 2001)의 최소주의 가설

Chomsky(1998; 1999; 2001)는 Chomsky(1995)까지 제안된 최소주의 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산 체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장에서 우리의 제안에 기초가 되는 몇몇 가설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배번집합(Numeración)으로의 순환적 접근

Chomsky(1998, 19)는 배번집합을 다음과 같이 *어휘 배열*(Orden Léxico: OL)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23) 배번집합 = $\{\{OL\}_i, \{OL\}_j, \{OL\}_k \ldots.\}$

각각의 하위 집합 OL에는 기능핵 C나 $\underline{v}$가 있다. Chomsky는 어떤 도출의 *명제구*(fase)를 OL_i의 선택으로 도출된 하나의 통사체로서 고려하고 있다. 통사체라 함은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하고 원칙적인 명제(Proposición)에 가까운 요소일 것이다. 즉 모든 의미역이 부여되어진 동사구 또는 시제(Tiempo)와 힘(Fuerza)이 포함된 완전한 절을 의미한다. 기능범주 SC나 $S\underline{v}$는 명제구이지만, ST와 Φ-자질이 없는 핵에 의해

투사된 SV은 명제구가 아니다. 한 명제구는 하위 집합 OL_i를 다 사용하면 완성되며, 도출은 명제구 마다 진행된다. 연산 체계는 독립된 통사체를 형성하기 위해 또는 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OL_i에 접근한다. 이러한 작동이 "배번집합으로의 순환적 접근"이라고 한다. Chomsky(1998; 1999; 2001)에 의하면, 삭제된 자질은 논리형태 부문에서 보이지 않고 연산 체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음성형태 부문에는 접근할 수 있다. Chomsky(1998, 48)는 철자화를 점검 작용의 한 부분으로 고려한다. 삭제된 자질들은 글자 그대로 삭제되지만, 삭제될 자질들이 음성형태 부문에 보내진 뒤에 삭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철자화도 논리형태로의 도출 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Chomsky(1998; 1999; 2001)는 배번집합과 철자화를 포함한 모든 연산이 순환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Chomsky(1995)까지 유지되던 "외현적/내현적" 연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강자질 개념"과 "지연 원리"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2) 일치(Acuerdo) 과정을 통한 비해석성 자질 점검

Chomsky(1992; 1994) 체계에서는 동사의 자질 점검만이 핵-핵 관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Chomsky(1995)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격과 일치 자질의 점검도 자질 유인을 통해 핵-핵 관계에서 일어나도록 구조적 통일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예로, 형식 자질을 핵으로 부가시킨 뒤에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에는 형식 자질이 없게 되며, 형식 자질이 없는 범주는 발음할 수 없다고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이 옳다면, 유인된 형식 자질들은 다시 원래의 명사구에 복원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출이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Chomsky(1998; 1999; 2001)에서는 "자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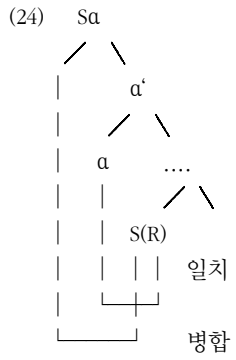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모든 이동은 접합점에서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질 점검이 핵-핵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접합점 조건인 해독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자질 점검이 핵-핵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내적인 근거밖에는 없다. 따라서 Chomsky(1998; 1999; 2001)에서는 일치(Acuerdo) 점검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일치는 비해석성 자질을 삭제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기능핵의 비해석성 Φ-자질은 탐색자(sonda)로 작용하여 자신의 Φ-자질과 일치되는 자질을 지닌 목표(meta)를 제한된 탐색 공간 내에서 찾게 된다. 탐색자와 목표가 지닌 비해석성 자질은 일치 작용이 일어나도록 활성화시킨다. 탐색자가 일치하는 적절한 목표를 찾으면 일치 작용이 일어나서 탐색자와 목표의 비해석성 자질이 삭제되는 것이다.

Chomsky(1998; 1999; 2001)에 따르면, 기능 범주들은 의미적 선택 자질 특성(propiedades de selección semántica)을 가진다. 그러한 특성에 의거하여 병합에 따라 도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C는 실사 범주(categorías substantivas)에 의해, v는 단지 기능 범주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T는 C 또는 동사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C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T는 완전한 Φ-자질을 가지며 동사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T는 불완전 Φ-자질을 갖는다. C는 T를 선택하고, T와 v는 동사 요소를 선택한다. v는 또한 외부 논항으로서 SN/SD를 선택할 수 있다. 의미적 선택이외에, 각 기능 범주는 Espec을 허용한다: C에게 있어서는 이동된 의문사구, T에게는 표층 주어, v에게는 외현적으로 이동하는 목적어를 위한 지정어 자리를 허용한다. T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질은 PPE 자질이다. Chomsky(1998)에 의하면 C와 v의 해당 자질도 PPE 유형의 하나이며 비해석성 자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T의 PPE 자질은 보편적이며, C와 v는 언어에 따라 매개변인화 할 수 있어 선택적이라 가정한다. 또한 기능 범주 C, T, v는 비해석

성 ϕ-자질을 가진다. 이러한 비해석성 자질이 Chomsky(1998; 1999; 2001)가 새롭게 제안한 이동 및 일치 체계(Sistema de Acuerdo)의 핵심을 구성한다.

Chomsky(1998, 36-37)에서 이동 연산은 병합과 일치의 결합이다. 이동은 α와 α의 영역에 있는 자질 R간의 일치 관계를 설정한다. 자질 R을 지닌 구 S(R)을 Sα에 병합시킨다. 여기서 S(R)은 R에 의해 결정된 구이고 Sα는 α에 의해 이끌어진 투사이다. S(R)은 α의 Espec으로 이동된다. 다음의 도출 구조에 이러한 설명이 반영되어 있다:

(24)



구체적으로 영어의 한 도출을 살펴보자 (Chomsky 1998, 37):

(25) T be elected an unpopular candidate.

예문 (25)에는 세 유형의 비해석성 자질이 있다: i) T의 ϕ-자질; ii) T의 PPE 자질; iii) 'an unpopular candidate'의 구조격 자질. T의 ϕ-자질, 즉 탐색자(sonda)는 가장 가까운 성분 통어 영역에서 일치되는 목표구(meta)를 찾는다. 그 목표가 되는 구는 ϕ-자질을 활성화(activación)하는 격자질을

가진 SN ‘an unpopular candidate’ 일 것이다. 이 구가 확인되면, 탐색자는 일치 자질들(rasgos acoplados)의 일치(Acuerdo)를 통해 점검된다. 이때 ‘an unpopular candidate’의 비해석성 격자질도 점검되어 진다[14].

다른 한편으로 T의 PPE 자질은 T의 탐색자에 의해 결정된 구의 외현적 이동에 의해 만족된다. Chomsky(1998; 1999; 2001)에서 T의 PPE 자질은, 단지 D-자질 점검을 가정했었던 Chomsky(1995)와는 다르게, 어떤 구에 의해 Espec을 채움으로서 만족된다. PPE 자질 자체만으로는 결코 이동 작용을 수행할 수 없다. 이동 작용은 자질의 일치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동의 대상을 탐색하는 역할은 PPE 자질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PPE 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기능 범주 핵의 비해석성 ϕ-자질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능핵의 ϕ-자질은 자기 영역 안의 가장 근접한 다른 ϕ-자질을 목표로 하여 일치하게 되고, 그 목표가 되는 구가 PPE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5)에 있는 모든 비해석성 자질들이 점검되고 제거된다. 결론적으로, Chomsky (1998; 1999; 2001)에서는 점검이 자질 유인 없이 탐색자와 가장 가깝고 활성화된 구의 ϕ-자질들 사이에 일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일치를 통한 비해석성 자질의 제거는 탐색자와 일치할 구의 활성화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성화가 제거되면 뒤이은 일치 관계에 참여할 수 없다.

2. 스페인어 전치 주어의 일치 점검 과정

위에서 살펴본 Chomsky(1998; 1999; 2001)의 가설 내에서, 스페인어 주어의 이동 및 자질 점검이 어떻게 새롭게 분석될 수 있는지 보자.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는 T의 PPE 자질이나 격자질

14) Chomsky(1998, 1999, 2001)에서는 “격은 별개의 자질이 아니라 ϕ-자질에 수반되는 특성”이라고 보는 George y Kornfilt(1981)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때문에 외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핵 Tóp의 비해석성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질을 Chomsky(1998; 1999; 2001)의 가설을 따라 PPE 유형의 비해석성 [tópico] 자질로 가정하겠다. 그러한 가정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가 주제화된 요소들의 정보 구조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T의 비해석성 PPE 자질, 격자질 및 어휘 주어의 격자질이 점검될 수 있는지 보자.

다음 (26)의 문장은 의미적 선택 자질에 의거하여 어휘 항목의 병합으로 (27)과 같은 초기 도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26) Guillermo leyó la revista.

(27) [$S_{\underline{v}}$ Guillermo $\underline{v}$ [$_{sv}$ leyó la revista]]

(27) 구조에서 주어 *Guillermo*은 목적어 *la revista*를 성분 통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볼 때 상위의 어떤 기능 범주로부터 *Guillermo*가 *la revista* 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homsky(1998, 22)가 제시한 명제구 불침투 조건(Condición de Impenetrabilidad de Fase)[15]하에, v의 영역에 있게 되는 *la revista*는 상위 기능 범주와의 연산에 참여할 수 없고, 외곽에 위치한 요소 *Guillermo*가 상위 기능 범주와 일치하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28) 명제구 불침투 조건

15) 명제구 불침투 조건은 강력한 하위 인접조건을 형성하여 순환적 유도 과정의 개념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부적 조건이 항상 이동은 각 순환적 단계에서 단거리 이동이 되도록 요구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합치를 유도해 낸다.

HP = [α [H β]] 구조(β는 H의 영역이고, α는 H의 외곽요소)에서, 명제구 α의 경우

H의 영역은 α 밖의 연산에 접근 불가능하고 단지 H의 핵과 외곽 요소만이 가능하다.

(27)에 이은 도출의 구조적 형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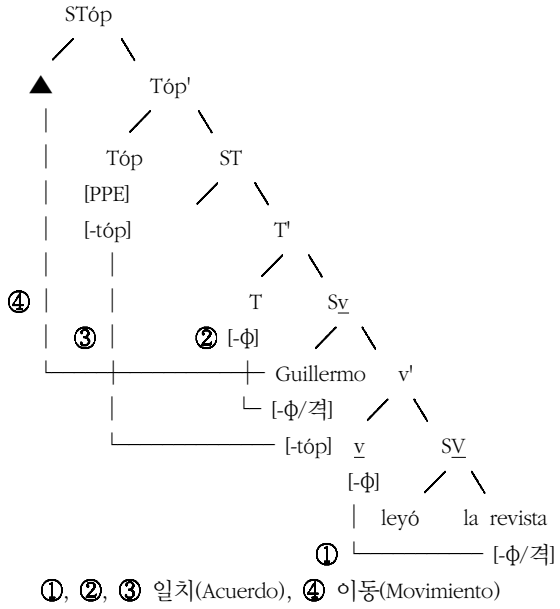
(29) [$_{STop}$ Guillermo$_i$ Top [T [$_{Sv}$ h_i leyó la revista]]]

배번집합의 한 어휘배열 집합의 요소들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의 완전한 명제구가 완성되었을 때, 외곽 위치에 있는 요소만이 명제구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v의 Espec에 있는 *Guillermo*가 상위 기능핵 Tóp의 Espec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Tóp은 v의 영역에 있는 *la revista*를 볼 수가 없어 Tóp과의 일치 연산에 참여할 수 없다.

(26)의 도출 과정을 보면, 먼저 초기구조 (27)이 형성된다. v의 탐색자인 비해석성 ϕ-자질과 제자리에 있는 목적어 la revista의 ϕ-자질 (일치를 활성화시키는 비해석성 격자질을 포함) 사이에 일치 점검이 일어나게 된다. 일치에 의거하여 v의 비해석성 ϕ-자질과 la revista의 격자질이 제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능핵 T가 도출 구조에 병합되어 들어오고 T의 ϕ-자질과 기저 주어 *Guillermo*의 ϕ-자질 사이에 일치 점검이 일어나 T의 비해석성 ϕ-자질과 *Guillermo*의 비해석성 격자질이 점검되고 삭제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스페인어에서 T의 PPE 자질 만족을 위한 이동이 의무적이 아니며, v와 C에서처럼 선택적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Espec, ST] 위치로 *Guillermo*가 외현적으로 반드시 이동하지는 않는다. 도출이 계속 진행되어 기능핵 Tóp이 도출 구조에 병합되어 들어오게 된다. 이 Tóp은 비해석성 [-tóp] 자질을 가

지고 있고 v의 Espec 위치에 있는 *Guillermo*의 [-tóp] 자질 (일치를 활성화시키는 비해석성 [-tóp] 자질)과 일치하게 된다. 또한 Tóp은 선택적 PPE 자질을 가진다고 가정하므로 *Guillermo*가 외현적으로 이동하여 [Espec, STóp]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Tóp의 비해석성 PPE 자질과 *Guillermo*의 [-tóp] 자질이 점검되고 삭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26)의 스페인어 예문이 정확하게 도출되어질 수 있다[16]. 이러한 설명이 다음의 도출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30)



16) 여기서 우리는 스페인어의 경우, 영어와는 다르게 T의 PPE 자질 만족을 위한 이동이 의무적이 아니며 v와 C에서 처럼 선택적이라 가정하겠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에서 주어의 통사적 특성을 최소주의 가설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았다. 생성 문법 내에서 영어 구문을 위해 제안되어 왔던 표준 가설에 따르면, 전치 주어의 위치는 [Espec, ST]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 SVO 어순뿐만 아니라 VSO와 VOS 어순이 가능하다. 표준 가설 하에서는 후자의 두 어순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T의 PPE 자질 만족을 위한 이동이 의무적이 아니라고 가정하였다. 말하자면 [Espec, ST]가 주어에 의해 외현적 이동으로 반드시 채워질 필요가 없음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SVO 어순의 도출을 설명할 수 있는가? 즉, 스페인어의 전치주어의 통사적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비해석성 자질들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기능범주 ST보다 상위에 [Espec, STóp]가 있다고 가정하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전치주어가 기능핵 Tóp의 [tópico] 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외현적으로 [Espec, STóp]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치 주어의 이동은 T의 PPE 자질이나 격자질이 아닌 [tópico] 자질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근거는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가 주제화된 요소들의 정보 구조와 같은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 즉 T의 비해석성 자질인 PPE 자질과 격자질 그리고 어휘 주어의 격자질의 점검과 관련하여, T의 ϕ-자질과 기저 주어의 ϕ-자질 사이에 일치 점검이 일어나 T의 비해석성 자질들과 주어의 비해석성 격자질이 점검되고 삭제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Alexiadou, A. y E. Anagnostopoulou(1998), "Parametrizing AGR: Word Order, V-Movement and EPP-Check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16, pp.491-539.

Arnaiz, A.(1992), "On Word Order in Wh-Questions in Spanish",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16, pp.1-10.

Belletti, A.(1990), *Generalized Verb Movement*, Turin, Rosenberg & Sellier.

Bok-Bennema, R.(1992), "AGR-s in Spanish", en D. Gilberts y S. Looyenga (eds.), *Language and Cognition*, 2, Groningen: RUG.

Bosque, I.(1992), "La negación y el principio de las categorías vacías", en V. Demonte (ed.), (1994), *Gramática del Español*, *Publicaciones de la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VI,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Cardinaletti, A.(1996), "Subjects and Clause Structure", *University of Venice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6, pp.55-95.

Chomsky, N.(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_____(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_____(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Vol.15.

_____(1999), "Derivation by Phase", manuscrito.

_____(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anuscrito.

Contreras, H.(1976), "Theme and Rheme in Spanish Syntax", en M. Luján y

F. Hensey (eds.), *Current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330-342.

_____(1978),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Cátedra.

_____(1991), "On the position of subjects", en S.D. Rothstein (ed.), *Syntax and Semantics*, 25,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Inc., pp.63-79.

_____(1996), "Economy and Projection", en C. Parodi, C. Quicoli, M. Saltarelli, y M.L. Zubizarreta (eds.), *Aspects of Romance Linguistic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149-160.

Espinal, T.(1991), "On Expletive Negation. Some Remarks with regard to Catalan",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Vol.15, pp.41-65.

George, L. & J. Kornfilt(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F. Heny(ed.), *Binding and Filtering*, MIT Press.

Goodall, G.(1991), "On the Status of Spec of IP", *Proceedings of WCCFL*, 10, pp.175-182.

Kayne, R.(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Koopman, H. y D. Sportiche (1991), "The Position of Subjects", *Lingua* Vol.85, pp.211-258.

Laka, I.(1990),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Tesis doctoral, MIT.

Lee, M.K.(1996), *La distribución de los sujetos y los objetos directos del español: el caso abstracto en el programa minimista*, Tesis doctoral,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_____(2000), "Sobre el Principio de Proyección Ampliado", *Estudios Hispánicos*, Vol.17, pp.175-198.

Longobardi, G.(1991), "In Defense of the Correspondence Hypothesis: Island Effects and Parasitic Constructions in Logical Form", en J. Huang y R. May (eds.), *Logical Structure and Linguistic Structure*, Dordrecht: Reidel, pp.149-196.

Nash, L. y A. Rouveret(1997), "Proxy categories in Phrase Structure theory", manuscript, Université de Paris.

_____(1996), "On why Traces Cannot Be Phonetically Realized", *NELS*, 26, pp.211-226.

Olarrea, A.(1996), *Pre and Postverbal Subject Positions in Spanish: a Minimalist Account*,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Washington.

Ordóñez, F.(1997),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 in Spanish and Other Romance Languages*, Tesis doctoral,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_____(1998), "Post-verbal asymmetries in Span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16, pp.313-346.

Ordóñez, F. y E. Treviño(1995), "Los sujetos y objetos preverbales del español", El V Congreso de Gramática Generativa, La Coruña, Galicia.

_____(1999), "Left dislocated subjects and the pro-drop parameter: A case study of Spanish", *Lingua*, Vol.107, pp.39-68.

Ouhalla, J.(1990), "Sentential Negation, Relativized Minimality, and the Aspectual Status of Auxiliaries", *The Linguistic Review*, Vol.7, pp.183-231.

Picallo, M.C.(1998), "On the Extended Projection and null expletive subjects", *Probus*, Vol.10, pp.219-241.

Pollock, J-Y.(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Vol.20, pp.365-424.

Rizzi, L.(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Suñer, M.(1982), *Syntax and Semantics of Spanish Presentational Sentence-Type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_____ (1994), "V-Movement and the Licensing of Argumental Wh-Phrases in Span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12, pp.335-372.

Suñer, M. y C. Lizardi(1992), "Dialectal Variation in an Argument/Adjunct Asymmetry", LSRL, Vol.22, El Paso: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Toribio, A.J.(1993), *Parametric Variation in the Licensing of Nominals*, Tesis doctoral, Cornell University.

Torrego, E.(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Vol.14, pp.103-129.

Yang, S.K.(2000), *El Vaciado en las Construcciones Coordinadas Copulativas: La Elipsis Parcial*, Tesis doctoral, Madrid, UCM.

Zanuttini, R.(1990), "Two Types of Negative Markers", *NELS*, 20, pp.517-530.

Zubizarreta, M.L.(1994), "Grammatical Representation of Topic and Focus: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the Clause",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l I.U. de Ortega y Gasset*, 2, pp.181-208.

_____(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IT Press.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14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9일